

論 文

刺戟의 極端性과 自我關與水準이 印象形成에 미치는 影響

趙 兢 鎬

韓國教育開發院

印象이 形成되는 過程에 관한 加重值的 平均模型이 몇 가지 점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3개의 實驗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實驗 I에서는 刺戟의 極端性에 따라 好惡判斷에서 負의 情報의 優越現象이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았다. 實驗 II에서는 與親判斷에서 刺戟의 極端性에 상관 없이 항상 中立의인 判斷을 하는 結果를 얻었다. 實驗 III에서는 單語의 意味의 範圍가 클수록 加重値는 작아짐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結果들은 印象形成의 實驗들에서 形成되어지는 최종적인 印象의 양상은 刺戟의 極端性 및 自我關與水準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對人知覺의 분야에서 他人에 대한 印象이 形成되는 過程에 대한 연구는 Asch(1946)의 시인적인 실험 이래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被驗者들은 몇 개의 人物評價形容詞(personality-trait adjectives)만을 가지고도 상당히 정확하고 또 조직화된 단일한 印象을 形成한다는 것이 밝혀졌다(Krech, Crutchfield, & Ballachey, 1972). 그 후 연구자들은 이렇게 他人에 대한 印象이 形成되어지는 過程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론을 제기하고 검토하였다(Wyer & Watson, 1968).

이들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지는 것은 加重值的 平均模型(weighted averaging model)으로 대표되는 Anderson 등(1965)의 情報統合理論(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이다. 이 이론에서는 印象形成의 실험들에서 사용되는 形容詞들이 갖는 意味는 어떤 範圍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불변한 것으로서, 이는 單語에 대한 尺度值(scale value)로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尺度值 이외에 여러 單語가 統合되어 하나의 評定値를 산출해 낼 때 각 單語가 갖는 加重値(weight)를 가정한다. 즉 이 加重値는 여러 單語가 統合될 때 각 單語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되는 셈으로서 이것 또한

항상 고정된 값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加重値는 그 單語의 尺度値가 극단적일수록 커지지만, 그 單語가 正的인 것이냐 또는 負的인 것이냐 하는 제시되는 單語의 方向에는 무관하게 항상 같다고 한다. 즉 (+3)의 尺度値를 갖는 單語의 加重値는 (+1)이나 (-1)의 尺度値를 갖는 單語의 加重値보다는 훨씬 크지만, (-3)의 尺度値를 갖는 單語의 加重値와는 똑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加重值的 平均模型은 몇가지 점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Wyer(1974)에 의하면 被驗者들에게 요구하는 判斷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한 趙兢鎬(1974a)에 의하면 판단대상에 대한 被驗者의 自我關與水準(ego-involvement level)에 따라서 形成되는 印象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Kaplan(1971) 및 李秀遠 등(1974)의 人物評價形容詞의 兩面意味價測定の 資料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듯이, 印象形成의 실험들에서 사용되는 形容詞 자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形成되는 印象의 양상이 다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본 論文에서는 이렇게 判斷의 種類와 제시되어지는 刺戟의 種類에 따라 形成되어지는 印象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을 관련된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므로써, 앞서 언급한 加重值的 平均模型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 보려 하였다.

實 驗 I

최근에 일련의 연구자들은 똑같이 극단적으로 正的인 情報과 負的인 情報를 제시하고 印象을 形成시킬 때 최종적으로 形成되는 印象과 그 持續의 過程에서 負的인 情報가 正的인 情報보다 더 큰 影響力을 갖는다는 結果를 발표하였다 (Richey 등, 1967, 1970a, 1970b, 1972, 1975; Bernadette, 1973; 등). 이러한 結果는 똑같이 극단적인 情報라면 正的인 情報나 또는 負的인 情報나 하는 그 情報의 方向과는 무관하게 加重值가 같다고 주장하는 加重值的 平均模型의 예인과는 어긋나는 것으로서, 趙蕪鎬(1974b)도 동일한 結果를 얻고 있다.

이러한 結果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正的인 情報와 負的인 情報의 加重值가 같다고 주장하는 加重值的 平均模型은 적어도 똑같이 극단적인 情報가 제시되는 條件에서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負的인 情報의 加重值가 正的인 情報의 그것보다 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負的인 情報의 優越現象은 被驗者에게 제시되는 單語가 극단적인 單語組合이었기 때문에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즉 意味의 兩面價가 비교적 극적인 單語 극단적인 單語組合에서는 그런 效果가 나타나지 않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본 實驗에서는 이러한 負的인 情報의 優越現象이 제시되는 情報의 極端性에 따라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을 알아보려 하였다.

方 法

被驗者. 51名の 서울시내 여자고등학교 3학년

- * 實驗材料로 사용된 단어는 다음과 같다.
 HP; 성실하다. 총명하다. 명랑하다. 진실하다.
 근면하다.
 HN; 건방지다. 야박하다. 응졸하다. 불순하다.
 비굴하다.
 MP; 양전하다. 깔끔하다. 푹푹하다. 재미있다.
 대연하다.
 MN; 능청맞다. 소심하다. 완고하다. 인일하다.
 나약하다.

생들이 被驗者로 사용되었으며, 4集團으로 나뉘어서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材料. 李秀遠등(1974)의 “人物評價形容詞好惡度 測定”資料에서 극단적으로 正的인 單語 5개 (HP), 극단적으로 負的인 單語 5개 (HN), 약간 正的인 單語 5개 (MP), 약간 負的인 單語 5개 (MN)를 뽑아 實驗材料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平均好惡度 (favorableness)는 1~7의 7點 好惡度 尺度上에서 6.31, 1.72, 5.07, 2.94이었다. 이 중 HP와 HN을 한 組로 하여 實驗材料를 작성하고, (H집단: 總好惡度平均=4.01), MP와 MN을 한 組로 하여 實驗材料를 작성하였다 (M집단: 總好惡度平均=4.00)

實驗材料는 集團別로 작성하였다. 즉 正的인 單語 5개와 負的인 單語 5개가 한 人物을 기술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다른 페이지에 인쇄하고 그 밑에 모두 그의 印象을 評定시키기 위한 7點 好惡度 尺度를 적어 넣었다. 이 尺度는 제시되는 人物이 “道德的으로 아주 좋은 人物이라고 생각되면 7點에, 또 道德的으로 아주 나쁜 人物이라고 생각되면 1點에” 評定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그 人物의 道德의 人格에 대한 印象의 好惡의 정도를 7點 尺度化한 것이었다. 그 다음 情報提示順序에 따라 PN條件을 위해서는 正的인 情報를 인쇄한 페이지를 첫장으로 하고, 負的인 情報를 인쇄한 페이지를 뒷장으로 넣어 소책자를 만들었다. NP條件에서는 그 順序가 반대이었다. 따라서 모두 4가지의 소책자 (HPN, HNP, MPN, MNP)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소책자는 1次와 2次 評定에 사용되었고, 3次的인 印象 評定을 위해서는 별지에 따로 評定尺을 마련하였다.

實驗方案. 實驗方案은 2×2×3要因方案이었다 이들 要因들은 單語集團(아주 극단적인 集團과 덜 극단적인 集團), 情報提示順序(正的인 情報를 먼저 제시하고 負的인 情報를 나중에 제시하는 集團 <PN>과 그 반대인 集團 <PN>) 및 評定試行 (1, 2, 3次) 들이었다. 따라서 2×2의 집단의 반복측정 설계이었다.

節次. 實驗은 다음과 같은 節次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① 1次 評定試行: 배부해 준 소책자의 제일 첫 페이지를 읽고, 그 人物의 道德的인 人格을 評定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1次 試行에서 PN集團은 正的인 情報만을, 그리고 NP集團은 負的인 情報만을 評定한 것이다.

② 10分間 휴식: 1次 評定 후 소책자를 넘기지 말고 10分間 휴식시간을 두었다. 그 목적은 다음 2次 評定에 미칠 最初情報効果(primacy effect)를 가급적 줄이자는 것이었다.

③ 2次 評定 試行: 다음으로 被驗者들은 다음 페이지를 읽고 評定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때 그들은 “2페이지에 적힌 단어들은 1페이지에서 여러분이 評定한 바로 그 人物의 또 다른 일면들인데, 이때의 評定은 2페이지에 있는 단어 5개에만 의존해서 해서는 안되고, 1페이지에서 본 단어 5개와 2페이지에 있는 단어 5개, 도합 10개의 단어 모두에 대해서 그의 道德의 人格에 대한 印象을 評定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므로 PN集團은 2페이지에서 負的 情報만을, 그리고 NP集團은 正的 情報만을 제시받았지만, 1페이지에서 각각 받았던 正的 情報과 負的 情報를 더해 즉 正的 情報과 負的 情報 모두에 대해서 印象을 評定하도록 되어 있었다.

④ 3次 評定 試行: 2次 評定이 끝난지 1주일 후에 被驗者들에게 다시 1주일 전에 評定했던 人物의 印象을 評定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評定은 아무런 事前指示가 없이 행해졌으며, 그 人物에 대해 받았던 10개의 單語 모두, 즉 正的인 單語와 負的인 單語 모두에 대해서 評定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진 실험사태를 통하여 특히 피험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던 점은 “제시되는 人物이 道德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하는 객관적인 好惡判斷(favorableness judgment)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이었다.

結 果

實驗의 結果를 정리하기 위하여 $2 \times 2 \times 3$ 要因 反復 측정 설계에 의한 變量分析을 해 본 결과는 다음 <表 1>과 같다.

<表 1>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單語集團과 덜 극단적인 單語集團의 好惡 評定值 사이에는 별로 큰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集團間의 F値는 5%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差異는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이 두

<表 1> 實驗集團 評定值의 變量分析

	SS	df	MS	F	p
單語集團(A)	7.46	1	7.46	3.29	>.05
提示順序(B)	24.41	1	24.41	10.75	<.01
A×B	12.72	1	12.72	5.60	<.05
被驗者內(第一誤差)	106.47	47	2.27		
試行(C)	1.53	2	.76	—	—
A×C	6.41	2	3.21	2.03	>.05
B×C	87.55	2	43.78	27.71	<.01
A×B×C	80.71	2	40.36	25.54	<.01
集團內(第二誤差)	142.30	94	1.55		

集團의 1, 2, 3次別 評定值를 PN, NP條件을 묶어 제시한 다음 <表 2>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表 2> 單語集團別(A) 試行別(C) 評定值 平均

	1 次	2 次	3 次
H 集團 (n=25)	3.48	3.68	3.40
M 集團 (n=26)	4.19	3.54	4.15

또 <表 1>에서 보던 情報提示順序에 따라서는 1%수준에서 의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와 單語集團과의 相互作用은 5%수준에서, 그리고 試行回數와의 相互作用은 1%수준에서 각각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結果는 다음 <表 3>에서 보던 더욱 명백해 진다.

<表 3> 單語集團(A) 情報提示順序(B)와 試行別(C) 評定值 平均

單語集團	試行		1 次	2 次	3 次
	提示順序				
H 集團	PN(n=12)		5.59	3.39	3.67
	NP(n=13)		1.54	3.92	3.15
M 集團	PN(n=16)		4.81	3.19	4.06
	NP(n=10)		3.20	4.10	4.30

<表 3>에서 보던 正的인 것이나 負的인 것 중 어느 한 情報만을 받았던 1次 評定과 이 두 情報를 모두 받았던 2次 評定の 評定值 사이에는 강한 最新情報効果(recency effect)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PN_1 > PN_2$, $NP_1 < NP_2$) 이런 最新情報効果는 PN條件이나 NP條件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F=.09$, $df=1, 48$, $p>.05$), 극단적인 단어집단에서는 덜 극단적인 단어집단에서보다 이런 最新情報 효과가 컸다 ($F=4.29$; $df=1.48$; $p<.05$).

이러한 결과는 負的인 情報의 첨가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변화량이 正的 情報의 첨가로 말미암아 생기는 변화량보다 큰 정도는 극단적인 單語集團에서는 아주 강하지만, 덜 극단적인 單語集團에서는 아주 미약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즉 극단적인 單語集團에서는 강한 負的 情報의 優越효과가 나타났지만, 덜 극단적인 單語集團에서는 그런 現象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表 2>에서 보듯이 H集團의 3次 評定値는 正的 情報과 負的 情報의 平均値(4.00)보다 훨씬 낮은 반면, M集團의 3次 評定値는 平均値와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명백해진다. 실제로 H集團과 M集團에서의 3次 評定値의 4.00에서의 이탈거리는 H집단에서는 5%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였지만($t=2.31; df=23, p<.05$) M集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79, df=24; p>.05$). 여기서 4.00은 加重値의 平均模型에서 正的인 情報과 負的인 情報의 加重値가 같다고 전제했을 때의 理論的인 印象評定値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주 극단적인 單語集團에서는 강한 負的 情報의 優越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덜 극단적인 單語集團에서는 Anderson등(1965)의 平均模型에서 예언하는 대로 中立的인 評定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實 驗 Ⅱ

마음갖춤새(set)가 사물 知覺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들이나 性格理論에서 보면, 自我關與의 水準에 따라 對象知覺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한다(Eiser & Stroebe, 1972). 또한 趙兢鎬등(1973)은 印象形成에서 準據效果의 量이 刺戟과 準據와의 關係의 適切性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對人知覺의 영역에서도 自我關與의 수준에 따라 印象判斷의 結果가 달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趙兢鎬(1974a)는 똑같이 극단적인 情報를 제시하고 好惡判斷(favorableness judgment; 他人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는 나쁜 사람인지 하는 데 대한 判斷)을 시킬 경우와 與親判斷(likableness judgment; 他人을 얼마나 친구로 사귀고 싶은지 또는 사귀고 싶지 않은지 하는 데 대한 判斷)을 시켜본 결과 好惡判斷에서는 강한 負的 情

報의 優越효과가 나타났지만, 與親判斷에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Anderson등(1965)의 加重値의 平均模型에서 예언하는대로 中立的인 判斷을 하는 結果를 얻었다. 그는 이러한 結果를 好惡判斷과 與親判斷에 있어서의 自我關與水準의 차이 때문이라고 論議했다. 즉, 前者는 他人의 道德의 人格에 대한 印象을 客觀的으로 判斷하였고, 後者는 他人을 얼마나 친구로 사귀고 싶은지 즉 他人과 얼마나 친밀한 關係를 맺고 싶은지 하는 行動的인 定向을 主觀的으로 判斷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實驗Ⅰ에서 우리는 刺戟의 極端性에 따라 好惡判斷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고찰하였다. 본 實驗에서는 實驗Ⅰ에 이어, 이러한 與親判斷의 장면에서도 刺戟의 極端性에 따라 形成되는 印象의 양상에 차이가 날 것인가 하는 점을 밝혀보고, 實驗Ⅰ의 結果와 대비시켜 好惡判斷과 與親判斷의 차이를 알아보려 하였다.

方 法

被驗者, 48名の 서울 시내 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被驗者로 사용되었으며, 4集團으로 나누어서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實驗資料, 方案 및 節次. 實驗材料, 方案 및 節次는 實驗Ⅰ의 것과 동일하였다. 단지 다른 것은 實驗Ⅱ에서는 實驗Ⅰ과 같이 제시되는 人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하지 않고, “그를 얼마나 친구로 사귀고 싶은지 또는 사귀고 싶지 않은지”하는 與親判斷을 하도록 한 점이였다.

結 果

1) 與親判斷에서의 刺戟의 極端性에 따른 印象形成의 差異. 實驗의 結果를 정리하기 위하여 $2 \times 2 \times 3$ 要因 반복측정 方案의 變量分析을 해 본 結果 單語集團間이나 情報提示順序間 및 評定試行間에 모두 差가 의의없었다. 단지 提示順序와 評定試行間의 相互作用과 單語集團, 提示順序 및 評定試行間의 相互作用 만이 각각 1% 와 ($F=9.83, df=2.88, p<.01$) 5% ($F=4.70, df=2.88, p<.05$)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뿐이였

다. 이러한 결과는 與親判斷의 장면에서는 刺戟의 極端性이나 情報提示順序 및 評定試行 등이 印象評定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單語集團의 1, 2, 3次 評定値를 PN, NP條件를 합하여 제시한 다음 <表4>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表 4> 與親判斷 單語集團別 評點試行別 評定値平均

	1次	2次	3次
H集團(n=23)	4.09	4.04	4.00
M集團(n=25)	4.04	4.36	4.44

<表 4>에서 보면 극단적인 單語集團이나 덜 극단적인 單語集團의 評定値는 모두 中立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덜 극단적인 單語集團에서는 특히 3次 評定에서 약간의 正的인 印象評定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集團 모두 3次 評定値의 基準線(4.00)에서의 이탈거리는 의의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_H=0$, $df=22$; $t_M=1.83$, $df=23$, $.1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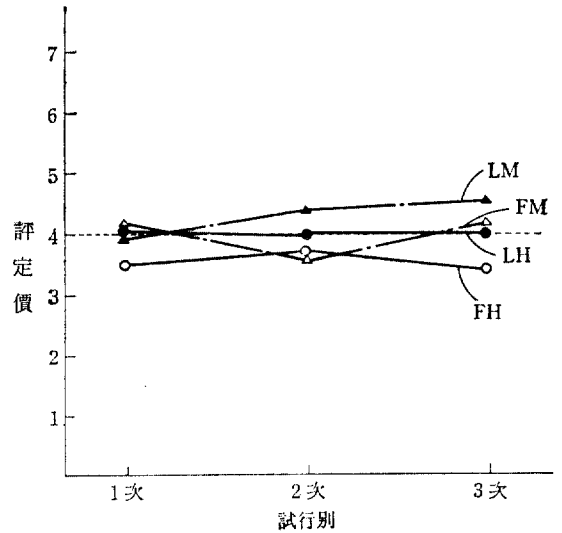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與親判斷을 시킬 때는 제시되는 單語가 극단적인 것이든 또는 덜 극단적인 것이든 간에 모두 加重値的 平均模型에 따라 中立的인 判斷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好惡判斷과 與親判斷의 差異. 實驗 I과 實驗 II의 결과를 합하여 비교하여 보면, 다음 <表 5> 및 <그림 1>과 같다.

<表 5> 集團別 判斷傾向

	好惡判斷	與親判斷
아주 극단적인 單語集團	負的情報優越現象	中立化現象
덜 극단적인 單語集團	中立化現象	中立化現象(正的情報優越現象?)

결론적으로 이들 實驗에서 보면, 實驗材料的 極端性和 自我關與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判斷의 結果가 다르게 될 수 있다. 즉, 위의 두 變因에 따라 각 形容詞가 갖는 加重値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準處에 따라 개개 形容詞의 意味는 달라지는 것 같으며,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機制는 때로는 Anderson 등의 加重値의 平均模型에 따르기도 하고 (FM과 LH集團의 경우), 또 때로는 어떤 다



<그림 1> 集團別·試行別 評定値平均

- L: 與親判斷
- F: 好惡判斷
- H: 아주 극단적인 單語集團
- M: 덜 극단적인 單語集團

른 새로운 模型에 따르기도 (FH와 LM의 경우) 하는 것 같다.

實 驗 Ⅲ

實驗 I의 結果에서 보면, 加重値的 平均模型에서 주장하는 한 單語가 갖는 加重値는 單語의 極端性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加重値는 어떻게 해서 刺戟의 極端性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

印象形成過程을 설명하기 위한 Asch(1946) 등의 意味變化假說은 “한 單語가 하나의 고정된 意味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질 수 있는 意味의 範圍는 상당히 다양하다” (Ostrom, 1967)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理論을 추종하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한 單語가 가질 수 있는 意味의 範圍(meaning range)를 측정하여, 비록 好惡度値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 意味의 範圍가 큰 單語가 받는 準據效果가 작은 單語가 받는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밝히려 하였다 (Wyer & Dermer, 1968; Wyer & Watson, 1969; Keplan, 1971, 1972; Hamilton 등, 1974; Himmelfarb, 1973; Wyer, 1974 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好惡判斷의 경우 극

단적인 單語集團에서 負的 情報의 優越現象이 나타나는 것은 극단적인 單語의 경우 正的 單語가 負的 單語보다 意味의 範圍가 커서 準據效果(負的 單語의 영향)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덜 극단적인 單語集團에서는 正的 單語나 負的 單語의 意味範圍가 같기 때문에 中立的인 判斷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본 實驗에서는 이러한 假定을 검증해 보려 하였다.

方 法

被驗者. 34名의 서울시내 대학교 2학년생들이 被驗者로 사용되었으며,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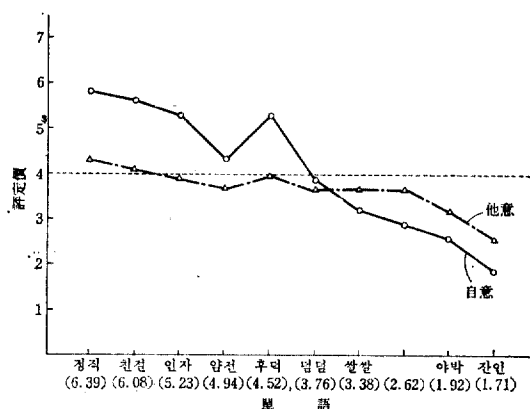
資料. 李秀遠등(1974)의 資料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正的인 단어 2개(HP), 負的인 단어 2개(HN), 약간 正的인 단어 2개(MP), 약간 負的인 단어 2개(MN), 中立的인 단어 2개(N)를 뽑아 實驗材料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好惡度平均은 7점 好惡度尺度上에서 6.24, 1.81, 5.08, 3.00, 4.14이었다.

節次. 각 피험자들에게 각 단어 형용사를 하나씩 차례로 주고 “어떤 사람이 他人에게 自意로 一內的인 動機 및 衝動에 따라 一形容詞한 行動을 했다”하는 情報과 또 “어떤 사람이 他人에게 他意로 一어쩔수 없는 상황 및 외부조건 때문에 一形容詞한 行動을 했다”하는 情報를 주고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를 7點 好惡度尺度上에서 評定시켰다. 따라서 한 피험자는 모두 20개 (10개 單語×2條件)의 評定을 한 셈이며, 評定순서는 無選的이었다.

結 果

全體 單語의 自意條件과 他意條件에서의 評定值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2>와 같다.

전체 單語에 있어서 自意, 他意 條件別 差異의 變量分析 결과 1%, 수준에서 的의있는 차이가 나왔다 ($F=3.93$, $df=9, 330$). 이로서 보면 自意로 한 行動과 他意로 한 行動의 評定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HP단어가 HN인 단어보다 컸으며, ($F=11.75$,



<그림 2> 單語別 條件別 評定值

* 괄호안 숫자는 원자료에서의 好惡度인

$df=1, 134$, $p<.01$), MP인 단어와 MN인 단어는 그 차이가 없었다. ($F=2.22$, $df=1, 134$, $p>.05$)

이러한 結果들에서 보면, 好惡判斷을 시킬 때, 극단적인 單語集團에서 負的 情報의 優越現象이 나타나는 것은, 意味의 範圍가 큰 正的 單語(HP)가 그 範圍가 작은 負的 單語(HN)의 影響을 많이 받게 때문이며, 덜 극단적인 單語集團에서 中立的인 評定이 나오는 것은 正的 單語나 負的 情報의 意味의 範圍가 같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 單語가 갖는 加重值는 그 單語의 意味範圍와는 逆相關의 關係가 있다고 볼 수 있다.

論 議

지금까지의 結果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사실을 추리해 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他人에 대한 印象을 形成시킬 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印象은 판단 대상에 대한 被驗者의 自我關與水準에 따라 달라진다. 즉, 自我關與水準이 낮은 他人의 道德의 人格에 대한 客觀的인 好惡判斷을 할 때와, 自我關與水準이 높은 他人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行動的인 定向을 主觀的으로 判斷할 때는 他人을 知覺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結果는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를 던져 주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어떤 知覺對象의 意味는 그것이 어떤 準據 속에서 判斷되느냐 하는 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즉 判斷者가 知覺對象에 부여하는 意味는 그가 그것과

어떤 關係에 있느냐 또는 그가 그것과 어떤 關係를 맺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데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마음갓춤새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온 바이다(趙婉鎬, 1973). 또한 이러한 結果는 오래전부터 社會心理學 분야에서 논란되어 온 態度와 行動의 괴리현상의 원인을 풀어 주고 예언력 높은 態度尺度를 제작하는 데 참고 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어떤 對象에 대한 態度와 行動은 그 對象과 關係를 맺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괴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前者는 그 對象에 대한 客觀적인 觀念일 뿐이고, 後者는 그 對象에 대한 行動的 意圖(behavioral intention)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어느 態度尺度가 예언력 높은 態度尺度가 되기 위해서는 그 對象에 대한 評價의 次元을 위주로 한 尺度보다는 그에 대한 行動的 意圖의 측정용 위주로 한 尺度이어야 한다. Fishbein(1963, 1967)도 이미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實驗材料로 사용되는 刺戟語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變因에 따라서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個人에 대한 印象判斷의 양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刺戟語 자체가 가지는 變因은 判斷者가 判斷對象과 맺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즉 好惡判斷의 경우(自我關與水準이 낮을 때) 刺戟語의 極端性이 높아지면 負的情報의 優越現象이 나타나고, 그것이 낮아지면 그런 現象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與親判斷의 경우에는(自我關與水準이 높을 때) 刺戟語의 極端性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負的情報와 正的情報는 동등한 效果를 가진다.

이러한 結果 또한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印象形成過程에 대한 加重值的 平均模型이 刺戟의 極端性과 自我關與水準에 따라 다르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好惡判斷의 경우 각 單語가 갖는 加重值는 각 單語가 갖는 意味의 範圍와 逆相關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意味의 範圍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Wyer와 Watson(1969)은 각 單語로 기술될 수 있는 사람의 最大好惡도와 最小好惡도의 차이를, Kaplan

(1971)은 각 單語의 好惡度尺度 상에서의 分布傾向(標準偏差)을, Kaplan(1972)은 각 單語가 갖는 兩面好惡度值를, Himmelfarb(1973)는 각 단어가 갖는 同義語의 수를, 그리고 Wyer(1974)는 각 單語로 기술되는 사람이 해당 好惡度尺도의 각 尺度值에 적절하게 분류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主觀的 確率의 分布를 각각 그 單語가 갖는 意味의 範圍로 삼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指標들의 공통적인 맹점은 극단적인 단어에서는 意味의 範圍가 아주 작고, 中立의인 단어에서는 아주 크게 나온다는 사실과, 그러한 單語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기술할 때의 意味상의 차이를 意味의 範圍의 指標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본 실험에서 사용된 意味의 範圍의 측정방법이 이러한 맹점을 모두 만족시켜주지는 못하겠지만, 同一한 個人이 아주 명백한 事態(自意條件)와 아주 불명백한 事態(他意條件) 즉, 그 行動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있는 事態와 그것이 애매한 事態에서의 意味의 差異를 그 範圍의 指標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指標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여기서 한가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은 與親判斷의 경우에는 意味의 範圍에 따른 加重值의 差異를 假定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他人과 사귀고 싶어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은 行動의 原因을 그 사람 자체에게 歸結시킬 수 있는 그의 自意的인 行動에 의해서이지, 그러한 歸結이 상당히 애매한 他意的인 行動은 거의 문제시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原因知覺에 관한 Heider(1944)의 理論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인간은 他人의 行爲를 지각할 때 그 行爲의 原因을 아울러 지각하며, 이때 그 行爲의 原因을 흔히 행위자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知覺者는 行爲의 책임을 행위자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속성에서 찾게 되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행위자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속성은 이제 그 행위자를 지각할 때 배어놓을 수 없는 행위자의 속성 내지는 實體로서 등장한다. 그러나 단일 행위와 원인을 행위자에게로 돌리지 않고, 그 당시의 주변적인 狀況으로 돌리게 된다면 행위자에게 부여

한 그러한 실체를 지각할 필요도 혹은 지각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行爲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知覺者가 행위자를 보는 각도는 달라지게 되며, 이후의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지각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Hastorf, Schneider & Polefka, 1970). Jones와 어떤 Davis(1965)에 의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일에 성공하면 그 原因을 그의 內部로 돌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外部로 돌리며,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外部로, 싫어하는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內部로 原因을 歸結시킨다는 結果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與親判斷의 경우에는 모든 刺戟語의 意味를 「自意」쪽으로만 받아들여므로써 意味의 範圍가 개재되는 정도가 다를런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상의 論議를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他人에 대한 印象의 判斷은 判斷對象의 極端性과 그에 대한 判斷者의 自我關與의 水準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判斷對象의 方向(正의인 情報인가 또는 負의인 情報인가)이나 自我關與의 水準과 그 對象이 갖는 加重值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加重值的 平均模型은 적절한 方向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에는 意味의 範圍와 判斷者의 自我關與水準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듯 싶다.

參 考 文 獻

李秀遠, 金正權, 趙兢鎬. 人物評價形容詞의 好惡度 및 兩面價 測定. 韓國心理學會誌, 1974, 2, 41-46.

趙兢鎬. 印象形成過程에서 본 準據에 대한 刺戟의 適切性.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3.

趙兢鎬. 他人의 印象에 대한 好惡判斷과 與親判斷의 差異. 한국심리학회 1974년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1974a.

趙兢鎬. 印象形成에서의 負의 情報의 優越現象. 韓國教育, 韓國教育開發院, 1974b, 45-60.

趙兢鎬, 李秀遠. 刺戟一準據 關係로 본 準據效果. 이의철박사회갑기념논총, 1973, 207-222.

Anderson, N.H. Integration theory and attitude change. *Psychol. Rev.*, 1971, 78, 171-206.

Anderson, N.H.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A brief survey*. Technical Report CHIP 24, Center for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pril, 1972(a).

Anderson, N.H. *Cognitive algebra: Integration theory applied to social attribution*. Technical Report CHIP 31, Center for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December, 1972(b).

Anderson, N.H., & Lampel, A.K. Effect of context on ratings of personality traits. *Psychonomic Science*, 1965, 3, 433-434.

Asch, S.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 abnorm. soc. Psychol.*, 1946, 41, 258-290.

Bernadette, G. The salience of negative information in impression formation among two Danish samples. *J. cross-cult. Psychol.*, 1973, 4, 193-206.

Chalmers, D.K. Meanings, impressions and attitudes: A model of the evaluation process. *Psychol. Rev.*, 1969, 76, 450-460.

Eiser, J.R., & Stroebe, W. *Categorization and social judgment*.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Fishbein, M.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 Rel.*, 1963, 16, 233-239.

Fishbein, M. A behavior theory approach to the relations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In M. Fishbein (Ed.), *Readings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Wiley, 1967.

Hamilton, D.L., & Zanna, M.P. Context effects in impression formation: Changes in connotative meaning. *J. pers. soc. Psychol.*, 1974, 29, 649-654.

Hastorf, A.H., Schneider, D.J., & Polefka, *Person perception*.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0.

Heider, F. Social perception and phenomenal

- causality. *Psychol. Rev.*, 1944, **51**, 358-374.
- Himmelfarb, S. General test of a differential weighted averaging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J. exp. soc. Psychol.*, 1973, **9**, 379-390.
- Jones, E.E., & Davis, K.E.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1965.
- Kaplan, K.J. Context effects in impression formation: The weighted average versus the meaning change formulation. *J. pers. soc. Psychol.*, 1971, **19**, 92-98.
- Kaplan, K.J. On the ambivalence-indifference problem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A suggested modification of the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Psychol. Bull.*, 1972, **72**, 361-372.
- Osgood, C.E., Suci, G.J., & Tannenbaum, P.H.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57.
- Osgood, C.E., & Tannenbaum, P.H. The principle of congruity in the prediction of attitude change. *Psychol. Rev.*, 1955, **62**, 42-55.
- Ostrom, T.M. Meaning shift in the judgment of compound stimuli. Unpublished manuscript, Ohio State University, 1967.
- Richey, M.H., & Cusumano, D.R. Negative salience in impressions of character: Effects of extremeness of stimulus information. *Psychonomic Science*, 1970, **20**, 81-83.
- Richey, M.H., & Dwyer, J.D. Negative salience in impressions of character: Sex differences. *Psychonomic Science*, 1970, **20**, 77-79.
- Richey, M.H., Koenigs, R.J., Richey, H.W., & Fortin, R. Negative salience in impressions of character: Effects of unequal propor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information. *J. Soc. Psychol.*, 1975, **97**, 233-241.
- Richey, M.H., McClelland, L., & Shimkunas, A.H. Relative influ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information in impression formation and persistence. *J. pers. soc. Psychol.*, 1967, **6**, 322-327.
- Richey, M.H., Richey, H.W., & Thieman, G. Negative salience in impression of character: Effects of new information on established relationships. *Psychonomic Science*, 1972, **28**, 65-67.
- Wyer, R.S., Jr. Changes in meaning and halo effects in personality impression formation. *J. pers. soc. Psychol.*, 1974, **29**, 829-835.
- Wyer, R.S., Jr., & Dermer, M. Effect of context and instructional set upon evaluations of personality trait adjectives. *J. pers. soc. Psychol.*, 1968, **9**, 7-14.
- Wyer, R.S., Jr., & Watson, S.F. Context effect in impression formation. *J. pers. soc. Psychol.*, 1969, **12**, 22-33.

EFFECTS OF STIMULUS EXTREMENESS AND EGO-INVOLVEMENT LEVEL ON IMPRESSION FORMATION

Cho, Gcung-ho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re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test weighted averaging model theory of impression formation. In Experiment I, the negative salience effects were found in the high-extreme-words-group, but not in the moderate-extreme-words-group when the dependent measure was in the favorable-unfavorable dimension. In Experiment II, the same two groups did not differ in their ratings on the likable-dislikable dimension. In Experiment III, the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meaning-range of words, the higher the weights of the words are was tested. It was concluded from these results that the impressions in impression formation experiments are function of the extremenesses of stimulus-words and ego-involvement-level of subjects to that target person.